

이달의 어항 ④ -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

# 봄빛으로 푸르른 서해의 고도, 어청도항

## 섬 절경과 등대 찾는 발길 쉼 없이 이어져



**봄**이 온다. 겨우내 잔뜩 웅크리다가 기지개를 켜고 먼 산을 보았더니, 반가운 손님 오시듯 봄은 푸른색으로 번져온다. 푸르름으로 본다면 봄 손님은 남쪽에서 먼저 오는 게 상식이지만 봄이 아니라도 사시사철 푸른 봄빛을 뽐내는 섬이 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於靑島). 군산여객선 터미널에서 3시간여 배를 타고 가야 도착하는 서해의 고도.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중간쯤에 위치하며, 중국에서 개 짓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만큼 서해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이 어떻게 늘 푸른 봄빛을 간직할 수 있을까? 이달의 국가어항을 어청도항으로 정하고 찾아가 보기로 한다.

어청도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1990년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서방파제 및 동방파제 건설에 착수, 본격적인 개발을 거쳐 현재 안정적인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까지 북·서·동방파제가 각각 250m, 호안 184m가 완공되었고, 물양장 230m 계획 대비 포장 1식과 선양장 20m 계획에 상부 20m를 공사 중이다. 항이 완공되면 내수면적은 406,000㎡, 어선 수용 능력은 264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 현황은 전업 102가구 250여명, 겸업 52가구 100여명, 지방어선이 70여척, 외래어선이 일일 최대 230여척, 해상,

전북, 우럭, 농어 등을 주어종으로 한 연간생산량이 101MT이다.

어청도항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방파제와 등대 등이 착공되어 태풍이 내습할 때는 서해 중부에서 많은 어선들을 보호하는 피항의 몫을 담당해 왔다. 남쪽을 향해 깊숙이 만입된 지형에 터를 잡은 어항은 섬 전체에 병풍처럼 둘러싼 절벽이 강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전북 일대는 물론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천연항의 조건을 갖추었다.

어청도항은 위낙 먼 바다에 떠 있는 섬이라 바닷물 맑기가 거울과 같다. 쪽빛 바다라는 말은 이럴 때 써야 맞는 말일 것이다. 배에서 섬을 바라보면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파도에 깎인 기암절벽과 그 위에 동양화처럼 뻗어있는 해송들이 신기하게도 푸른색을 띄고 있다. 푸름과 깨끗함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섬의 이름도 감탄사 ‘어(於), 푸를 ‘청(靑)자를 쓴다.



어청도의 지명과 사람이 살게 된 연유는 한 영웅의 전설로 시작된다.

고대 중국 초한시대 항우의 부하 장수인 전횡이 한나라와의 치열한 전쟁에 패하고, 부하 500여명과 선단을 이끌고 우리나라 서해를 향해 무작정 항해했다. 3개월간의 표류 끝에 어느 푸른 산과 같은 섬을 발견했다. 섬을 본 순간 모두는 ‘아! 푸르다’고 말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어청도항에 내려 마을을 지나 산길을

건는다. 쪽빛 바다와 봄빛 푸른 섬을 구경하며 한 20분을 오르면 절벽 위에 하얀 등대가 보인다. 어느새 너무 유명해져 섬의 상징이 되어버린 어청도 등대다. 1912년 일제강점기 대륙침략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군의 전략적 이유로 만들어진 등대는 현재 우리나라 서해안의 남북항로를 연결하는 모든 선박이 이용하는 중요한 유인등대다.

등대에 오르니 마을과 어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동향으로 길게 뻗은 마을은 충분한 햇볕을 받는데 좋은 조건이다. 뒤로는 산과 나무가 바닷바람을 막아주니 추울 일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 포근하게 안아주는 바다가 있으니, 꿈에서나 그럴 법한 마을 풍경이다.

낮에 보는 등대도 아름답지만 밤 등대는 훨씬 운치를 더한다. 도시의 소음과 탁한 공기에 가려 보이지 않던 은하수와 별뿔별을 볼 수 있다. 별들이 어찌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다. 어청도 등대 안에는 등대를 찾아온 손님을 위한 숙박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다.

다음날 아침. 고깃배들이 묶여 있는 어항으로 돌아오면, 물양장에서 섬사람들의 일상과 만난다. 길을 건다가 만난 촌로는 “조용하게 쉬며 마음잡기는 여그가 딱이지.”하고 넉지시 말을 건넨다.

그렇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등대보다도 바다가 주는 넉넉함과 푸르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오랜 세월 육지와 떨어져 모진 파도를 이겨내면서도 자연 앞에 겸손한 어부들의 삶을 배울 수 있다면 어청도 여행의 목적은 이루고도 남음이리라.

올 봄, 꽃구경이 목적이 아닌 봄빛처럼 맑은 바다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이는 어청도항으로 가야 한다.

♣ 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북군산 IC(706번 지방도-군산 방면)→성산(27번 국도)→군산시내→군산내항 여객선터미널(일일 1회 여객선 운항)